

1

연혁

History

I. 연 혁 History

가. 선사시대

강진군 지역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지식묘(고인돌 : 청동기시대의 무덤)가 전 읍면에 걸쳐 83개군(群) 687기가 분포돼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탐진강과 강진만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돼 있어 강과 바다를 터전으로 많은 부족집단이 삶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교차지점이기에 선사시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나. 마한시대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들어서면 한반도는 삼한시대로 접어들며, 고분이 발생하기 이전인 기원 후 300년경까지를 철기시대로, 그 이후 대형 옹관묘의 시기로 나누어 볼 때 강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철기시대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마한시대의 전통적인 묘제로 알려진 대형 옹관묘일 가능성이 높은 군동면 호계리 호동, 파산리 금곡 등의 고분군이 발견되어 마한의 어떤 소국이 있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다. 백제시대

삼국시대 강진은 백제의 관할 아래 속하게 되며, 우리군 북부지역인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움천면은 도무군에 속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무군의 속현인 동음현 관할구역이었다. 도무군은 고서이현(해남군 마산면), 색금현(해남군 현산면), 황술현(해남군 문내면)까지 포함한 큰 고을이었다.

라. 통일신라시대

도무군과 동음현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행정개편으로 백제 시대와 큰 차이 없이 행정영역을 유지하면서 도무군은 양무군, 동음현은 탐진현으로 바뀌며 탐진(耽津)이란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로를 통해 한반도와 제주도 등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해상문물 교류가 활발해져 불교와 청자문화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청자 요지, 백련사, 월남사지, 무위사 등이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고려시대에 강진의 행정구역은 몇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는다.

- 940년(태주23) 양무군이 도강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속현이던 탐진현이 영암군에 속하게 됐다.
- 1018년(현종9) 도강군이 그 속현이던 황원·해남, 죽산현과 함께 영암군의 속현이 됐다.
고려 초부터 강진 지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이때 완전히 독립된 행정 영역을 상실했다.
- 1124년(인종2) 영암의 속현이던 정안현이 장흥부로 승격되면서 영암에 속해있던 탐진현이 장흥의 관할로 속하게 됐다.
- 1172년(명종2) 영암에 속해있던 도강현이 주현으로 승격되면서 감무가 파견됐다.
한편 고려 때는 부인도, 은파도, 선산도, 벽랑도, 완도(이상 현재 완도군 지역) 등이 탐진현에 속해 있었다.

바. 조선시대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면 강진 지역이 갖는 해상교통의 용이함으로 왜구의 피해가 극심해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1417(태종17) 정월에 광산현(현 광주광역시)에 있던 병마도절제사영을 도강현(현재의 병영면)으로 옮기게 되며 조선조 500년간 50여 군현의 병권을 장악하는 군사도시로 성장한다.

이때 도강현과 탐진현을 합하여 하나의 행정체계인 강진현(康津縣)이 되면서 강진이란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도강과 탐진의 중간인 탐진의 고현산성에 읍치소를 두었다.

1429년(세종11) 도강의 송계로 옮겼다가 1475년(성종6) 탐진의 옛 치소로 다시 옮겨 새로 읍성을 축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599년(선조32) 당시 도원수 권율의 상소로 병영을 장흥으로 옮겼다가 1604년(선조37) 강진현의 옛 병영으로 다시 옮겨 1895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됐다.

1656년 네덜란드인 하멜일행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계기로 1997년 네덜란드 호르크 시장이 강진군을 방문하는 등 역사속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1801년에는 다산 정약용이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18년간 강진에 유배생활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정약용 유적지 중 다산초당은 남도답사 1번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문화유적이다.

사. 근대이후 강진

- 1895. 05. 26. : ‘도제폐지 지방제도개혁 및 지방관제’가 공포돼 강진현이 강진군으로 개편
- 1896. 02. 03. : 강진군 관할의 가우도 등 모든 섬이 신설된 완도군에 예속
- 1914. 03. 01. : 행정개편에 의해 군내 · 지전면을 강진면, 안주 · 고읍면을 성전면, 이지 · 열수 · 초곡면을 작천면, 파대 · 보암 · 백도면을 도암면, 대곡 · 호라 · 금천면을 군동면으로 통폐합하고 고군내면을 고군면으로 개칭(9면* 100마을 관할) * 9면 : 강진, 고군, 칠량, 대구, 성전, 움천, 작천, 도암, 군동
- 1931. 04. 01. : 병마절제사영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고군면(古郡面)을 병영면(兵營面)으로 개칭
- 1936. 07. 01. : 강진면이 강진읍으로 승격(1읍 8면 110리 관할)
- 1973. 07. 01. : 신전출장소 개소(1읍 8면 1출장소 관할)
- 1982. 05. 10. : 마량출장소 개소(1읍 8면 2출장소 관할)
- 1983. 02. 15. : 신전출장소가 신전면으로 승격(1읍 9면 1출장소 관할)
- 1989. 04. 01. : 마량출장소가 마량면으로 승격(1읍 10면)
- 1990. 08. 01. : 해남군 옥천면 봉황리 일원 도암면 편입
- 2020. 03. 현재 1읍 10면 법정리 112개, 행정리 293개 마을을 관할하고 있다.